

## 티베트 승려가 착용하는 의례용 관모의 종류와 특성

권영숙 · 이경희<sup>+</sup>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박사후 연구원<sup>+</sup>

### The Types and Features of Formal Ritual Hats for Tibetan Buddhist Priests

Young-Suk Kwon · Kyung-Hee Lee<sup>+</sup>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Post doc. Dept. of Graduate school & Creative Industry, Andong National University<sup>+</sup>

(투고일: 2012. 1. 1, 심사(수정)일: 2012. 3. 23, 게재확정일: 2012. 4. 23)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types and features of formal ritual hats for Tibetan Buddhist priests.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types of formal hats that Tibetan Buddhist priests wear during religious rites or rituals include: *u rgyan pad zhwa*, *pan zhwa*, *tshogs zhwa*, *rigs inga*, *zhwa nag*, *zhwa dmar* and *dwags zhwa*. The reason why such formal ritual hats as listed above were developed is because the region had an alpine climate, and also because they were the symbolism of Buddhism, the most reverent priest, and reincarnated Buddha thoughts. They were an essential part of the culture of dressing Buddhist statues and offering utensils. Formal ritual hats' shapes originate from lotus. They are colored in red, yellow, indigo, green, white or black, that reflect the nationality and aesthetics of Tibetans. They are mainly made of woolen or silk fabrics. They are usually decorated with gold, git bronze or jewels and the patterns of the sun and the moon, vajra or clouds.

Key words: features(특성), Formal Ritual Hats(의례용 관모), Tibetan Buddhist priests(티베트 승려), types(종류)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Kyung-Hee Lee, e-mail: dahyang-lkh@hanmail.net

## I. 서론

티베트에서 불교는 7세기 초 전래된 이후 현재까지 티베트인의 삶 속에 녹아들어 '티베트의 역사는 곧 티베트 불교사'를 의미할 정도로 정치·사회·문화의 중심사상이 되었다.<sup>1)</sup> 티베트의 불교·정치·사회·문화일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복식에 관한 연구는 중국 소수민족 복식의 한 부분으로 티베트 즉 장족(藏族) 일반인의 복식을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다룬 것이 대부분이다.<sup>2)</sup> 그러나 티베트 문화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 중국의 침략을 받기 전 1950년대까지 남성 인구의 20% 이상이 승려였던 점<sup>3)</sup>,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주요 티베트 인은 승려가 대부분인 점 등을 감안하면 티베트 복식에서 승려 복식은 매우 중요한데도 아직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티베트 승려 복식의 한 부분으로, 다른 지역의 불교 승려복식과는 달리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의례용 관모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의례용 관모를 중심으로 종류별 기원과 형태를 알아보고, 의례용 관모가 발달하게 된 이유 및 조형특성을 형태·색상·직물·장식 등으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티베트 승려가 착용하는 의례용 관모의 특성과 독자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티베트 승려 복식은 15세기에 겔룩빠가 성립되고 청(淸)나라 때 최대 교파가 된 이후, 복식 또한 점차 통일되어 청대부터 지금까지 기본적인 특징은 변화가 크지 않다.<sup>4)</sup> 그러나 대부분의 문헌과 사진자료들이 20세기에 조사된 것이므로, 20세기에서 현재까지의 의례용 관모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관모의 명칭·인명(人名)·지역 등의 티베트어 표기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와일리식 표기법(Wylie transliteration)을 사용하고<sup>5)</sup>, 티베트어 발음의 한글 표기는 동국대학교 티벳장경연구소의 『티벳어 한글 표기안』을 참고하였다.<sup>6)</sup>

## II. 티베트 불교의 역사와 종파

티베트 전체를 통일한 토번(吐蕃) 왕조의 제2대

왕 송첸 감뵤(Sronbstan sgampo, 581-649)가 네팔과 당(唐)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여 인도계·중국계 불교가 티베트에 전해지게 되었다. 8세기 후반 토번 왕조의 전성기를 맞이한 티송 데첸(Khrisron Idebtsan, 741-797)왕은 불교를 국교로 정하여 인도의 대학승(大學僧) 산타라시타(Sāntaraksita)와 빠드마삼바바(Padma sambhava)를 초청하고 삼에 대사원(bsam yas dgon pa)을 건립하는 등 불교의 정착에 힘썼다. 이후 티베트 불교는 인도 후기 불교의 밀교를 근본으로 하여 토착 신앙인 빈교(bonpo)와 혼합되었다. 토번 왕조 말기에 불교가 탄압받기도 하였으나, 10세기 초에 건립된 고격(古格) 왕국의 왕가는 1042년경 인도의 아띠샤(Atisha, 982-1054)를 초청하여 불교를 부흥시켰다. 13세기에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몽고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티베트 불교가 원나라로 전해져 국교(國敎)가 되기도 하였다.

15세기 총카빠(Tsong Khapa, 1357-1419)에 의해 티베트 불교는 현교(顯敎)와 밀교,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을 통합한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겔룩빠의 최고위자가 몽고 왕실로부터 달라이 라마(Dalai lama)의 호칭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서양에서 티베트 법왕(法王)을 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달라이(Dalai)는 몽골어로 '바다'를, 라마(lama)는 '덕이 높은 스승'을 가리킨다. 티베트는 1959년 중국의 침략을 받기 전까지 달라이 라마가 나라를 이끌어 가는 법왕제(法王制)의 불교국가였으며, 오늘날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인도의 다람살라(Dharamshala)에서 망명정부를 이끌어 가고 있다.<sup>7)</sup>

티베트 불교의 종파는 크게 4개로 겔룩빠(dGelugs pa), 닝마빠(rNinma pa), 까규빠(bKabrgyud pa), 사까빠(Saskya pa)로 구분된다.

겔룩빠는 총카빠를 교조(敎祖)로 하지만, 겔룩빠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던 아띠샤의 교리를 바탕으로 한 까담빠(Kadam pa)를 흡수한 것이다. 겔룩빠의 최고위자인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의 국왕을 겸하고 있어 티베트 불교의 최대 종파이며, 달라이 라마는 환생(還生)을 통해 계승되고 있다. 현교와 합리적인 사고를 존중하고, 중심교법은 람림(Lam rim)이다.

닝마빠는 빠드마삼바바를 교조로 하는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오래된 학파이다. 출가교단(出家教團)을 형성하지 않고 재가(在家) 밀교의 전통을 지켜왔으며, 최고 지도자인 민뎀링 띠첸(sMingrolglin Trichen)은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심교법은 즉첸(rdzogs chen)이다.

까규빠는 마르빠(Marpa, 1012-1098)를 교조로 하고, 밀라레빠(Milarspa, 1040-1123), 감뽀빠(Gampopa, 1079-1153)로 이어져 왔다. 까규빠는 상빠(Shangspa) 까규와 닥포(Dvagspo) 까규로, 닥포 까규는 까르마(Karma) · 차빠(Tshalpa) · 바롬(Barom) · 팍두(Phaggru) 까규의 4개의 지파로, 그 중 팍두 까규는 디궁(bri-kung) 까규를 비롯해 8개의 지파로 나뉘어졌다. 이 가운데 오늘날 가장 큰 지파는 까르마 까규와 디궁 까규이다.

티베트 불교의 특수성인 활불전세(活佛轉世) 제도는 까르마 까규의 두습 켄빠(Dusgsum mkhyenpa, 1110-1193)로부터 시작되어 제1대 까르마빠(Karmapa)가 된 이후, 오늘날 17대 까르마빠가 까규파의 최고 지도자이다. 중심교법은 마하무드라(Mahamudra)의 비법(秘法)과 나로빠(Naropa)의 육법(六法)이다.

사까빠는 중앙 티베트 창 지방에 있는 사까 사원의 씨족(氏族) 교단에서 유래되었다. 18세기에 뉘마라캉(Drolma Lhakhan)과 뉘축 라캉(Phuntsok Lhakhan)으로 분열되어, 현재의 최고 지도자인 사까 띠진(Saskya Trizin)은 뉘마 라캉 출신이다. 중심교법은 도과설(道果說)이다.<sup>8)</sup>

### Ⅲ. 티베트 승려의 의례용 관모

티베트 승려의 관모는 일상용과 의례용으로 구분된다. 티베트 승려는 민머리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상용 관모는 상급의 승려들이 사원을 떠나 장거리 여행을 할 때 고산기후의 강한 일광과 한랭한 날씨를 견디기 위해 착용하는 여름 · 겨울의 승마용 모자가 있다. 의례용 관모는 사원에서 집회(集會) 때, 경전을 읽 때, 각종 의례와 의식에서 착용하는 것으로 종파와 승려의 계급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sup>9)</sup>

티베트 승려가 착용하는 의례용 관모에는 우겐빠샤 · 뽀샤 · 축샤 · 립응아 · 샤낙 · 샤마르 · 닥샤 등이 있으며,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우겐빠샤(urgyan pad zhwa)

모체는 오각형이고 모체의 좌우에 위로 접힌 챙(brim)이 있으며, 전체 형태는 활짝 핀 연꽃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모정(帽頂)에는 금강저(金剛杵, vajra)와 매 깃털[鷹羽] 장식이 있고, 모체 중간부 위에는 해 · 달[日月] 문양이 있으며, 아래에는 한 개의 꽃잎이 표현되어 있다. 모체와 접힌 챙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층(層)은 생기차제(生起次第) · 원만차제(圓滿次第)를, 모정의 첨(尖) 세 개는 법신불(法身佛: 비로자나불) · 응신불(應身佛: 아미타불) · 보신불(報身佛: 불공성취불)을, 백 · 청 · 황 · 적 · 녹색의 다섯 가지 색상은 각각 비로자나불(毗盧遮那佛) · 아축불(阿閼佛) · 보생불(寶生佛) · 아미타불(阿彌陀佛) · 불공성취불(不空成就佛)의 오불(五佛)을<sup>10)</sup>, 해 · 달 문양은 방편(方便)과 지혜의 결합을, 모정의 금강저 장식은 선정(禪定)이 견고하고 꺾이지 않음을, 매 깃털 장식은 지상 최고의 불법을 상징한다.





우겐빠샤는 빠드마삼바바의 모자로 전해지는데, 빠드마삼바바는 토착 종교인 뵤교와 불교를 융합하여 티베트에 불교가 정착하는 데 기여한 인물로서 구루 린포체(guru rinpoche) 즉 '소중한 스승'이라 하여 티베트 사람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겐빠샤'라는 명칭에서 우겐은 인도 북동지역에 위치한 구루 린포체의 탄생지를, 빠샤는 연화모(蓮花帽, lotus hat)를 가리킨다. 닝마빠의 최고위 라마만이 쓸 수 있다.<sup>11)</sup>

<표 1><sup>12)</sup>의 ①은 청대 자수(刺繡) 불화(佛畫)에 빠드마삼바바가 우겐빠샤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②는 근대에 제작된 것으로 서로 비교하면 ②는 ①에 비해 모정이 상대적으로 높고 각이 날카로우며, 챙이 접힌 것이 아니라 앞에만 꽃잎을 붙여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다. 모정이 높아지면서 해 · 달 문양이 모정 쪽으로 더 올라가 있고, 금강저 장식 위의 매 깃털 장식은 보이지 않는데 제작부터 생략된 것인지 후에 소실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③은 닝마빠의 빠

<표 1> 우겐빠샤

①	②	③
		
<p>- 1만년의 이야기 티베트, p. 125.</p>	<p>- 하늘과 맞닿은 불교왕국 티벳, p. 151.</p>	<p>- <a href="http://www.palyul.org">http://www.palyul.org</a></p>

<표 2> 뻘샤

홍색 뻘샤		황색 뻘샤	
①	②	③	④
			
<p>- 1만년의 이야기 티베트, p. 121, 151.</p>		<p>- The Life of Tibetan Monk, p. 33.</p>	<p>- 少數民族服飾卷(上), p. 450.</p>

마 노부 린포체(Pema Norbu Rinpoche, 1932-2009)가 우겐빠샤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좌우와 중앙에 있는 꽃잎이 3단계의 크기로 각각 표현되어 있으며, 화문(花紋)이 화려한 천을 사용하고 연질(軟質)의 모자[帽]가 아닌 경질(硬質)의 관(crown) 형태이다. 매 깃털 장식은 상징적으로 표현될 뿐 실질적인 매 깃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sup>13)</sup>

## 2. 뻘샤(pan zhwa)

모체를 측면에서 보면 떨어지는 물방울 모양의 뾰족한 부분이 모정에 있고, 모체 하부의 가운데를 길게

늘어뜨려 귀를 가리는 형태이다. 뻘샤의 뾰족한 모정은 지극히 높은 불법(佛法)의 중도관(中道觀)을, 좌우의 귀덮개는 이의제(二義諦)를 상징한다. 색상은 초기에 홍색만 사용되다가 15세기 총카빠가 계율을 재정비하여 황색 뻘샤를 착용하기 시작한 이후, 다른 종파에서는 홍색을 겐룩빠에서는 황색을 주로 사용한다. 직물은 방로(氈氈)<sup>14)</sup>와 견직물을 이용하여 제작된다.

뻘샤는 '학자(pandita) 모자'라는 뜻으로, 학식과 학위(學位)를 표시하여 달라이 라마·뻘첸 라마(Panchen lama)·각 교파의 활불·대사원의 주지(住持)만이 쓸 수 있다.<sup>15)</sup>

<표 2><sup>16)</sup>의 ①은 청대 불화에 표현된 아미샤의 홍

색 뺨사이다. 모체에는 모정을 돌아가는 금선(金線)의 가로 줄무늬가 2줄 있다. 겔룩빠를 제외한 다른 종파에서는 홍색 뺨사의 모정에 1·2·3·5 줄의 금선으로 장식함으로써 학식의 정도를 나타내기도 한다.<sup>17)</sup> ②는 불화에 표현된 사까빠의 가장 유명한 고승인 사까 오조(五祖) 중 사까 빠디따(Saskya pandita, 1182-1251)가 착용한 홍색 뺨사이다. 사까빠의 뺨사도 다른 종파와 마찬가지로 모정이 뽀족하지만, 사까 오조의 뺨사는 모정이 비교적 덜 뽀족하고 완만한 것이 특징적이다.<sup>18)</sup> ③은 황색 방로로 제작된 겔룩빠 뺨사의 옆모습으로 가장자리에는 홍색 선을 둘렀다. ④는 검은 황색 견직물로, 안은 화려한 문양의 견직물로 만든 뺨사를 착용한 앞·옆모습이다. ①·②·④를 통해 뺨사 쓴 모습을 서로 비교하면 초기에는 귀덮개를 좌우로 늘어뜨렸으나, 후기에는 좌우 귀덮개 길이의 중간쯤 되는 위치에 바느질로 고정해 줌으로써 뺨사를 썼을 때 귀덮개가 등 뒤로 젖혀지게 되었다. 귀덮개가 등 뒤로 넘어감으로써 얼굴 형태가 온전히 보이고 귀덮개가 움직이지 않아 단정하며, 화려한 안감이 드러나 장식성이 더 강해진 것을 볼 수 있다.

### 3. 축사(tshogs zhwa)

모체를 측면에서 보면 머리의 정수리에서부터 목덜미로 이어지는 곡선을 따라 굽어있는 형태이다. 모

체 위에 수천 가닥의 모사(毛絲)가 조밀하게 배열되어 있는 모양이 닭의 볏과 비슷하여 계관모(鷄冠帽)라고도 하며, 로마시대 투구를 떠올리게 한다.<sup>19)</sup> 모체의 아래는 좌우가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 착용하지 않을 때는 손잡이 역할을 한다. 겔룩빠의 황색 축사는 겔과 모체 상부의 모사는 황색, 안은 흰색으로 손잡이의 겉은 홍색, 안은 청색으로 만든다. 황색·흰색·청색은 각각 지혜의 문수보살(文殊菩薩)·자비(慈悲)의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무상(無上)한 힘의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을 상징한다. 모체 위에 줄지어져 있는 수천 가닥의 실은 지혜·자비심·무상한 힘의 충분한 발현 즉 성불(成佛)을 표현한 것이다.<sup>20)</sup> 모든 종파의 승려들이 착용하는 모자로 겔룩빠는 황색, 그 외 다른 종파에서는 홍색을 주로 사용한다.

〈표 3〉<sup>21)</sup>의 ①은 황색 축사로 가장자리에 홍색으로 선을 둘렀다. 황색 모자라 하여 샤세르(zhwa ser)라고도 한다. 축사는 모사의 배열된 방식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는데, ②의 모사를 곧게 빗질하여 가지런하고 뾰뾰하게 세운 축사와 ③의 모사가 구불구불한 상태로 날날이 흩어진 축사이다. 승려의 지위에 따라 상급의 승려가 모사를 뾰뾰하게 세운 것을 착용한다.<sup>22)</sup> ②는 축사를 착용한 옆모습이다. 착용자의 목덜미 쪽을 보면 손잡이가 보이지 않는데, 축사를 머리에 쓰면 손잡이는 모체 안으로 접혀 들어가기 때

〈표 3〉 축사

황색 축사		홍색 축사	
①	②	③	④
			
- <i>The Life of Tibetan Monk</i> , p. 34.	- <i>藏族服飾史</i> , p. 188.	- <i>E/벉속으로</i> , p. 78.	- <i>TIBETAN COSTUME AND ORNAMENTS</i> , p. 142.

<표 4> 릭응아

①	②	③
		
<p>- 하늘과 맞닿은 불교왕국 티베트, p. 151.</p>	<p>- 인도의 불교미술, p. 171.</p>	<p>- 까르마빠 나를 생각하세요, p. 77.</p>

문이다. ④는 사까빠의 축사로 흑색 모체에 홍색 모사가 배색된 것이다. 황색 축사에 비해 모체가 곡선적이지도 날렵하지도 않고 투박하다.

#### 4. 릭응아(rigs inga)

모체는 다섯 개의 꽃잎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평면적인 형태이고, 꽃잎 각각의 중앙에는 오방불(五方佛)의 불상 또는 상징하는 글자가 표현되어 있어 오불관(五佛冠)이라고도 한다. 토착 종교인 빈교 모자와 유사한 형태로, 불교가 빈교와 융합되는 과정에서 불교 승려들도 종교의식을 행할 때 쓰게 되었다.<sup>23)</sup>

<표 4><sup>24)</sup>의 ①은 릭응아를 펼친 모습으로 꽃잎의 중앙에는 오방불을 상징하는 범어(梵語)가 각각 그려져 있다. ②는 고승이 착용하던 것으로, 구리로 된 꽃잎 위에는 각각 금으로 만든 불상이 연화좌(蓮花座) 위에 앉아 있다. 불상의 둘레에는 금관, 터키옥, 자개, 첨정석(尖頂石) 등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③은 까규빠의 17대 까르마빠가 종교의식에서 릭응아를 갖추어 쓴 모습이다. 정수리에는 오방불의 육계(肉髻)를 상징하는 흑색 관인 쯔뵤(cod pan)을 쓰고, 릭응아를 그 위에 둘러 끈으로 고정하였다. 릭응아 위에는 다섯 가지 색상의 실크로 만든 장식 띠 다르뵤(dar dpyangs)<sup>25)</sup>을 좌우에 늘어뜨려 장식하였다.

앞서 살펴본 우겐빠샤·뵤샤·축사 등이 단독으로 착용되는데 반해, 릭응아는 쯔뵤·다르뵤와 함께 착용되어 더 화려하고 장식성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 5. 샤낙(zhwa nag)

샤낙은 검은 색 모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두 가지 양식이 보인다. 편이상 출현 시기가 빠른 순서에 따라 양식 1, 양식 2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양식 1

모체는 오각형의 검은 색 관(crown)이고, 모체를 둘러싼 챙이 있는데 모정과 챙의 높이가 비슷하다. 전면 좌우의 챙 가장자리에는 금색 장식을 하여 금변흑모(金邊黑帽)라고도 한다. 모체의 중간부 아래에는 금색의 납작한 마름모꼴 장식이 있으며, 챙 위·아래의 금색 선과 모체 중간부의 해·달 장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샤낙의 기원은 자비의 여신[dakini, 空行母]들이 제1대 까르마빠인 두슘 켄빠의 수행 성취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들 10만 명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모자를 두슘 켄빠에게 주어 쓰게 된 데서 유래한 것이다. 검은 색 모자를 쓴다하여 까르마 까규빠를 '흑모파(黑帽派)'로 칭하기도 하며, 까규빠의 최고 지도자인



〈표 5〉 샤낙

양식 1			양식 2	
①	②	③	④	⑤
				
- 1만년의 이야기 티베트, p. 163.	- 까르마빠 나를 생각하세요, p. 61.	- <a href="http://karmapa.brainbooking.com">http://karmapa.brain booking.com</a>	- 1만년의 이야기 티베트, p. 219.	- <a href="http://www.kagyuooffice.org">http://www.kagyuooffi ce.org</a>

까르마빠가 착용한다.<sup>26)</sup>

〈표 5〉<sup>27)</sup>의 ①은 청대 불화에서 두숨 켄빠가 샤낙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그의 제자이면서 2대 까르마빠인 까르마 빠시(Karma pakshi, 1204 - 1283)가 원나라의 몽케 칸(蒙哥汗)으로부터 하사받은 모자를 까르마 까규의 시조인 두숨 켄빠에게 상징적으로 그려 넣은 것이다.<sup>28)</sup> ②와 ③은 17대 까르마빠인 오겐 트린리 도르제(Orgyan phrinlas rdorje, 1985- )가 샤낙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해·달 장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③을 ①의 샤낙과 비교하면 모체 중간부 아래에 금색의 마름모꼴 장식과 해·달 장식이 더해졌을 뿐, 초기의 형태에서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양식 2

모체를 양식 1과 비교하면 오각형의 검은 색 관과 모체를 둘러싼 책이 있는 것은 동일하나 양식 2의 모체가 더 크고 모정이 곡선적이다. 또한 모정의 보석장식, 모체 중간부의 위에는 해·달, 아래에는 금강저, 모체 좌우의 구름 장식이 더해져서 양식 1보다 장식성이 강하다. 샤낙 모정과 좌우 책의 세 침은 법신불·응신불·보신불을, 모정의 금과 루비 장식은 밀교 가르침의 지혜와 만다라(mandala)의 절정을, 해·달은 사물을 보는 붓다의 두 가지 지혜를, 금강저의 네 갈래는 깨달음을 위한 네 가지 활동을, 좌우의 구름 문양은 지혜와 자비의 비[雨]가 모든 이에

게 내림을 상징한다.<sup>29)</sup> 이와 같은 형태는 명나라의 영락제가 5대 까르마빠인 데신 쉐빠(Debzhin gshegs-pa, 1384 - 1415)를 대보법왕(大寶法王)에 봉하고 샤낙을 승인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sup>30)</sup>

〈표 5〉의 ④는 청대 불화에서 9대 까르마빠인 왕축 도르제(dBangphyug rdorje, 1556 - 1603)가 샤낙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⑤는 16대 까르마빠인 랑중 립빠 도르제(Rangbyung rigpa'i rdorje, 1924 - 1981)가 샤낙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⑤를 ④의 샤낙과 비교하면 모체와 해·달·금강저 장식이 더 크고, 모체의 외곽선이 날카로운 직선에서 완만한 곡선으로 변화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샤낙은 두 가지 양식이 공존하고 있다. 두 가지 양식 모두 몽골과 명의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것으로 관(crown)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외래적인 요소가 티베트에 들어와 그대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양식은 모두 세부적인 크기와 실루엣이 약간 변화된 점을 제외하면, 기본적인 형태에서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샤마르(zhwa dmar)

샤마르는 붉은 색 모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샤낙과 매우 유사하여, 기본적인 형태는 같고 색상과 세부장식이 조금 다를 뿐이다. 샤마르도 샤낙과 같이 두 가지 양식이 존재하므로 편의상 출현 시기가 빠른 순

서에 따라 양식 1, 양식 2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양식 1

샤마르의 양식 1은 샤낙의 양식 1과 동일한 형태에 색상은 다르고, 모체 중간부 아래에는 금색의 납작한 마름모꼴 장식이 있으며, 해·달 장식은 없다.

샤마르의 기원은 1대 샤마르빠(Zhwa dmar pa) 드락빠 쉹게(Gragspa sengge, 1284-1349)가 원나라로부터 홍색 모자를 받은 데서 비롯되었다. 샤마르빠는 까르마 까구빠에서 까르마빠 다음으로 높은 지위이며 18세기 말 10대까지 이어졌다.<sup>31)</sup> 홍색 모자를 받을 당시 이미 까르마빠의 샤낙이 존재하고 있었고, 같은 지파이므로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샤마르는 까르마빠 아래 서열의 환생 라마인 샤마르빠, 타이 시뚜빠(Tai situpa), 고씨르 갈참(Goshir gyal tshab)이 착용할 수 있다.<sup>32)</sup>

〈표 6〉<sup>33)</sup>의 ①은 12대 타이 시뚜빠인 빼마 똬요 닌제(Péma Tönyö Nyinjé, 1954- ) 린포체가 모체 중간부 아래에 금색의 마름모꼴 장식이 있는 샤마르를 쓰고 있다. 이 샤마르는 〈표 5〉의 ②와 색상만 다를 뿐 같은 양식이다.

2) 양식 2

샤마르의 양식 2는 샤낙의 양식 2와 동일한 형태

에 색상은 다르고, 모체 중간부의 장식에서 차이가 있다.

〈표 6〉의 ②는 청대 불화에 10대 샤마르빠인 초드롭 가초(Chosgrub rgyamtsho, 1741-1792)가 샤마르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②를 통해 초기의 샤마르를 보면 모정에는 보석장식, 모체 중간부의 위에는 해·달, 아래에는 금색 판 위에 세 개의 보석장식, 모체 좌우에는 구름장식이 있다.

〈표 6〉의 ③은 12대 타이 시뚜빠인 빼마 똬요 닌제가, ④는 12대 갈참 린포체인 드락빠 텐빠 야뵐(Dragpa Tenpa Yarpel, 1954- )이 샤마르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③의 샤마르는 ②와 같은 초기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반면, ④의 샤마르에는 세 개의 보석장식 대신 금강저 장식이 있다. 이를 통해 현대에 샤마르의 양식 2에는 보석 장식과 금강저 장식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까르마빠의 샤낙에 있던 금강저 장식이 샤마르에도 더해진 것은 중국의 티베트 침공 이후 활발들이 티베트를 떠나 세계로 활동영역이 넓어지면서 환생 라마의 수가 증가하고 그들 각각의 역할과 권위가 커짐에 따라 양식에 혼란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표 6〉을 통해 샤마르를 살펴본 결과 샤마르도 샤낙과 같이 두 가지 양식이 공존하며, 세부적인 크기와 실루엣이 약간 변화되었을 뿐 두 가지 양식은 모두 기원적인 형태에서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표 6〉 샤마르

양식 1	양식 2		
①	②	③	④
			
- 까르마빠 나를 생각하세요, p. 181.	- <a href="http://www.himalayanart.org">http://www.himalayanart.org</a>	- <a href="http://www.kagyu.it">http://www.kagyu.it</a>	- 까르마빠 나를 생각하세요, p. 185.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 닥샤(dwag zhwa)

모체는 오각형에서 모정의 뾰족한 각을 없애고 등글린 형태가 되어 모정이 다른 관모에 비해 높다. 앞서 살펴본 다른 관모에서는 하나의 챙이 모체를 둘러싸고 있는데 반해, 닥샤는 챙을 2단계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는 모체에서 남색 선으로만, 다른 하나는 별도의 천으로 된 큰 챙을 목둘레선까지 길게 내린 것이다. 따라서 닥샤를 쓰면 귀와 얼굴만 드러나고 목덜미는 가려지게 된다.

닥샤의 기원은 밀라레빠가 그의 제자 감뽀빠 소남 린첸(sGampopa sodnams rinchen, 1079 - 1153)에게 그의 신발 한 짝을 주었는데, 감뽀빠가 존경의 의미로 모자를 만들어 썼다는 데서 비롯되어 '감뽀빠 모자'라고도 한다. 닥샤는 까구빠의 최고 지도자인 까르마빠와 환생 라마들이 쓸 수 있다.<sup>34)</sup>

〈표 7〉<sup>35)</sup>의 ①은 불화의 한 부분으로 감뽀빠가 닥샤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②는 17대 까르마빠가 쓰고 있는 닥샤는 모정이 높고, 밑으로 내린 챙은 더 길며 끝부분의 각이 뾰족하여 ①보다 모체가 크다. 황색 바탕에 꽃문양이 있는 견직물로 제작되어 장식성도 더 강하다. 다른 관모와 마찬가지로 닥샤 역시 세부적인 크기와 실루엣이 약간 변화된 점을 제외하면, 기원적인 형태에서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닥샤



## IV. 티베트 승려가 착용하는 의례용 관모의 특성

### 1. 의례용 관모의 발달 이유

승려의 의례용 관모가 다른 지역의 불교복식에서는 흔히 보이지 않지만, 티베트에서 발달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티베트 승려의 의례용 관모는 고산기후의 영향을 받았다. 티베트의 자연환경은 평균 해발 4천미터 이상의 고원지대로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연평균 기온은 낮아서 북부 고원지역은 영하 2℃ 전후, 남부 계곡 지역은 영상 8℃ 전후이다. 기압이 낮고 산소가 적으며, 일조량이 많고 강해서 햇볕에 노출되면 피부가 상하게 되므로 피부를 가리고 야크버터를 발라 보호한다. 연간 기온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일교차는 매우 심하여 하루 동안 사계절이 있다고 할 정도이다. 이렇게 한랭하고 변화가 많은 기후환경 때문에 티베트에서는 체온 보호를 위해 방한모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sup>36)</sup> 더구나 일반인과는 달리 승려는 삭발하므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관모가 더욱 필요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티베트 승려의 의례용 관모는 활불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티베트 불교에서 라마는 인간의 삶을 누린 후에 육체를 버리고 다른 육체로 전생(轉生)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인간에 머물지 않고 불보살의 화신(化身)인 활불로 승화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뽀첸 라마는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여겨져 승배의 대상이 된다.<sup>37)</sup> 각 종파의 여러 활불들이 13세기 중엽부터 티베트 국내뿐만 아니라 원·명·청나라에까지 건너가 교류하고, 외국 왕실을 통해 외래적인 관모를 도입한 이후 후계자들이 계속 사용함으로써<sup>38)</sup> 활불을 위한 관모가 발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티베트 승려의 의례용 관모는 각 종파의 조사(祖師)와 불교 사상을 상징한다. 대부분의 관모는 기원을 통해 착용을 시작한 조사가 분명하여, 그들의 행적과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티베트에서는 겔룩빠를 제외한 세 종파가 내부적으로는 다시 지파가 나

누어지면서, 각 지파에서는 그들 각자의 교조 또는 조사를 상징하는 관모를 중시하여 계속 착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형태와 세부적인 장식 하나하나도 모두 불교의 사상과 교리가 깃들여 있어, 의례용 관모는 용도와 더불어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다.

넷째, 티베트 승려의 의례용 관모는 불상과 공양구(供養具)에 옷을 입히는 티베트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티베트에서는 불상에 의복과 관모를 만들어 입히거나 좋은 천으로 감싼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붓다나 훌륭한 스승의 조각상은 표상(表象)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이며,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몸에 구현하여 영적(靈的)인 힘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불상뿐만 아니라 불상 앞에 두는 여러 가지 기물에도 적용되어, 불상과 공양구는 매우 소중하게 다루어진다.<sup>39)</sup> 불상과 공양구에도 이러한데, 불보살의 화신인 활불을 위해 좋은 직물과 화려한 장식으로 제작된 다양한 관모가 발달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생각된다.

## 2. 의례용 관모의 조형특성

티베트 승려가 착용하는 의례용 관모의 조형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형태, 색상, 직물, 장식으로 나누어서 비교하면 <표 8>과 같다.

첫째, 티베트 승려가 착용하는 의례용 관모의 형태는 주로 연꽃을 상징하고 있다. <표 8> 관모의 조형특성 비교표의 모체 형태를 보면, 형태가 완전히 이질적인 뺨샤와 축샤를 제외한 다른 관모의 모체는 대체로 오각형을 이루고 있다. 관모의 기원 시기가 분명한 것 중에서 가장 빨리 출현하는 것은 우겐뺨샤인데, 앞서 살펴본 <표 1>에서 우겐뺨샤는 접어올린 챙이 모체보다 낮고, 연질(軟質)의 관모에서 점차 챙이 모체를 둘러싼 경질(硬質)의 관모로 변화된다.

<표 9> 이미지를 통한 관모의 형태 비교를 통해 우겐뺨샤와 다른 관모를 비교하면 립응아·샤낙·샤마르·닥샤의 형태 또한 모체를 둘러싼 챙이 모체보다 낮거나 높은 점, 모체와 챙의 분리여부 및 간격 차이만 있을 뿐 우겐뺨샤가 변화·발전된 형태와 크

<표 8> 각 종류별 관모의 조형특성 비교 및 착용자

종류		우겐뺨샤	뺨샤	축샤	립응아	샤낙	샤마르	닥샤	
조형특성									
기원 시기		8C 후	11C 중	-	7C 이전	12C 중	14C 초	12C 초	
형태	모체	오각형	떨어지는 물방울	로마투구	꽃잎5개	오각형	오각형	상부가 곡선적인 오각형	
	관의 여부	×, ○	×	○	×	○	○	○	
주요 색상		백, 청, 황, 홍, 녹색	홍, 황	홍, 황	백, 청, 황, 홍, 흑	흑	홍	홍	
직물		-	방로 견직물	방로	견직물	-	-	견직물	
장식	모체	모정	금강저, 매 깃털	×	모사 수천가닥	×	금, 보석	금, 보석	×
		위	해, 달	×	×	×	해, 달 또는 ×	해, 달 또는 ×	×
	중간부	아래	꽃잎1개	×	×	×	2개가 교차된 금강저 또는 마름모꼴 장식	3개의 보석 또는 마름모꼴 장식	×
	모체의 좌우		×	×	×	×	구름	구름	×
착용자		닝마빠 최고위 라마	각 교파의 활불, 대사원의 주지	각 교파의 승려	각 교파의 고승	까규파의 까르마빠	까규파의 환생 라마	까규파의 까르마빠, 환생 라마	

〈표 9〉 이미지를 통한 각 관모의 형태 비교

우겐빠샤	릭응아	샤낙	닥샤
			
- 1만년의 이야기 티베트, p. 125.	- 가르마빠 나를 생각하세요, p. 77.	- <a href="http://www.kagyuoffice.org">http://www.kagyuoffice.org</a>	- 가르마빠 나를 생각하세요, p. 139.

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겐빠샤의 형태가 연꽃 모양을 나타낸 것이듯, 릭응아·샤낙·샤마르·닥샤의 형태 또한 연꽃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꽃은 물기 많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더럽혀지지 않고 순수한 모습을 띠어, 티베트 불교에서는 순수·완전·자비·금욕의 상징이다. 빠드마삼바바를 연꽃에서 태어났다 하여 연화생(蓮花生) 대사라 칭하는 것도, 붓다와 조사의 상을 연화대좌에 앉은 모습으로 조성하는 것도 신성(神聖)과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sup>40)</sup>

둘째, 티베트 승려가 착용하는 의례용 관모의 색상은 홍·황·청·녹·백·흑색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티베트 일반인의 복식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이 색상들은 오방불의 상징색과 한랭한 고원지대의 자연색을 반영하는 생활문화적인 요소가 강하다. 홍색은 아미타불과 공간호법신(空間護法身)을, 황색은 보생불과 대지(大地)를, 청색은 아축불과 푸른 하늘을, 녹색은 불공성취불과 강·하천을, 백색은 비로자나불과 흰 구름을 나타낸다.<sup>41)</sup> 흑색은 고산기후의 척박한 생활환경에서 티베트인의 생존을 위해 의·식·주와 종교적인 봉헌물(奉獻物)을 공급해 주어 매우 중요한 야크(yak)를 상징하기도 하여 길조의 색으로 인식된다.<sup>42)</sup>

주요 색상 가운데서도 각 교파를 대표하는 색이 달라서 달라이 라마가 속한 겐룩빠는 황색을, 닝마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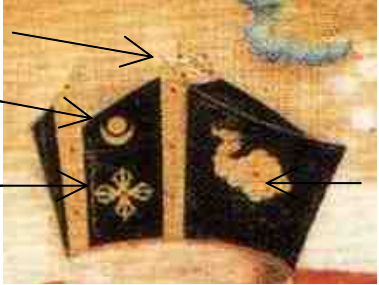
는 홍색을, 까규빠는 백색을, 사까빠는 홍·백·흑색을 숭상하여 주로 많이 사용한다.<sup>43)</sup> 따라서 티베트 승려가 착용하는 의례용 관모의 색상은 장족의 민족성과 미의식, 불교 사상, 각 교파의 상징색이 반영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셋째, 티베트 승려가 착용하는 의례용 관모의 직물은 방로와 각종 견직물이 사용되었다. 방로는 티베트에서 모자·의복·신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주요 재료이다. 고원지대의 한랭한 기후에는 자연히 보온성이 뛰어난 모직물이 요구되어 대부분의 승려들이 착용하는 관모도 모직물로 제작된다. 그 외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환생 라마들이 착용하는 관모는 화려한 꽃문양의 견직물이 주로 사용된다.

꽃은 보편적으로 사랑·연민·아름다움을 상징하는데, 티베트에서는 아름다움이 충만한 극락세계를 상징한다. 티베트 예술에서 다양하게 보이는 꽃문양은 실제하는 꽃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모란과 국화를 기본 모티프로 하여 상상의 여러 꽃들이 결합된 형태이다.<sup>44)</sup> 따라서 꽃문양이 있는 관모는 곧 깨달음을 이룬 극락세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티베트 승려가 착용하는 의례용 관모의 장식은 금·금동·각종 보석으로 해·달, 금강저, 구름 등의 문양을 표현하였다. 관모를 각종 귀금속과 보석으로 장식하는 것은 장신구로 꾸미는 것을 선호하는 티베트인들의 민족성에서 비롯되었다.<sup>45)</sup> 또한 몇몇 관모가 원·명·청의 왕실과 교류를 통해 도입된 경

〈표 10〉 우겐빠샤와 샤낙의 세부장식

우겐빠샤	샤낙
 <p>매 깃털 → 금강저 → 해·달 →</p>	 <p>금·보석 → 해·달 → 2개가 교차된 금강저 → 구름 →</p>
<p>- 1만년의 이야기 티베트, p. 125.</p>	<p>- 1만년의 이야기 티베트, p. 219.</p>

우가 있으므로, 왕실 관모의 장식성에서도 영향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장식 각각을 볼 수 있는 모자는 우겐빠샤와 샤낙이 대표적이다. 〈표 10〉의 우겐빠샤와 샤낙의 해·달 문양은 해를 상징하는 원과 그 아래에 달을 상징하는 좌우 대칭형의 초승달이 나란히 표현된다. 해는 궁극적인 보리심을, 달은 상대적인 보리심을 나타내어 종종 연꽃과 함께 표현된다. 관모의 형태가 연화를 상징하므로 해·달 문양이 사용되는 것은 지극히 관례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금강저는 탄트라(tantra) 불교의 전형적인 상징으로 파괴할 수 없는 견고함과 다이아몬드 같은 광명을 암시하여, 파괴할 수 없는 깨달음의 상태 또는 붓다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낸다. 〈표 10〉의 우겐빠샤 모정에는 한 개의 금강저 양쪽 면 중에 한 쪽만이 보이고, 샤낙의 중심부에는 두 개의 금강저를 직각으로 교차한 장식이 있다.

구름은 티베트 자연환경에서 높은 산꼭대기를 둘러싸고 신비로움을 띤 형태로 항상 실재함으로써, 모든 양식의 아름다운 구름 형상물은 티베트 예술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다. 구름은 생명의 비로 자연을 풍요롭게 하는 일반적인 의미 외에, 불교에서는 보리심(bodhicitta)의 비가 모두에게 내림을 상징한다.<sup>46)</sup> 〈표 10〉을 보면 샤낙의 좌우에는 구름의 꼬리가 관모의 중앙을 향하도록 묘사한 권운(卷雲)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티베트 승려가 착용하는 의례용 관모 각각은 고유한 조형특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티베트 승려들에게 의례용 관모는 단순히 복식의 일부가 아니라 불교 교리·티베트 불교를 대표하는 조사(祖師)·궁극적인 귀의처(歸依處)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체에서 가장 높은 곳인 머리 꼭대기에 쓰는 것이다.<sup>47)</sup>

## V. 결론

이상으로 티베트 승려가 착용하는 의례용 관모를 중심으로 종류별 형태와 기원을 알아보고, 의례용 관모의 발달이유 및 조형특성을 형태·색상·직물·장식성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겐빠샤의 모체는 오각형이고 모체의 좌우에 위로 접힌 챙이 있으며, 해·달·금강저·매 깃털 장식이 있다. 빠드마삼바바의 모자로 전해지며 활짝 핀 연꽃을 표현한 것으로, 닝마빠의 최고위 라마만이 쓸 수 있다.

빠샤의 모체를 측면에서 보면 떨어지는 물방울 모양의 뾰족한 부분이 모정에 있고, 모체 하부의 가운데를 길게 늘어뜨려 귀를 가리는 형태이다. 빠샤는 학자 모자로, 학식과 학위를 표시하여 활불과 대사원의 주지만이 쓸 수 있다. 다른 종파에서는 홍색을, 겐룩빠에서는 황색을 주로 사용한다.

축샤의 모체를 측면에서 보면 머리의 정수리에서부터 목덜미로 이어지는 곡선을 따라 굽어있는 형태이다. 모체 위에 수천 가닥의 모사가 조밀하게 배열

되어 있는 모양이 닭의 볏과 비슷하여 계관모라고도 하며, 로마시대 투구를 떠올리게 한다. 축사는 모사를 뺏뺏하게 세운 것과 모사가 날날이 흩어져 있는 것 두 종류가 있는데, 상급의 승려가 모사가 뺏뺏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착용한다. 다른 종파에서는 홍색을, 겐룩빠에서는 황색을 주로 사용한다.

릭응이는 다섯 개의 꽃잎에 오방불의 불상 또는 상징하는 글자가 표현되어 있어 오불관이라고도 한다. 원래 토착 종교인 빈교의 모자인데, 불교가 빈교와 융합되는 과정에서 불교 승려들도 쓰게 되었다. 다른 관모가 단독으로 착용되는데 반해, 릭응이는 쯔뻬 · 다르뻬와 함께 착용한다.

샤낙은 검은 색 모자로 모체는 오각형의 관이고 모체를 둘러싼 챙이 있다. 편의상 출현 시기가 빠른 순서에 따라 양식 1, 양식 2로 구분된다. 양식 1은 모체의 중앙에 금색의 납작한 마름모꼴 장식이 있으며, 좌우 챙의 가장자리에 금색 장식을 하여 금변흑 모라고도 한다. 해 · 달 장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공존하고 있다. 양식 2는 양식 1보다 모체가 더 크고 모정이 곡선적이며, 보석 · 해 · 달 · 금강저 · 구름 장식이 있다. 까규빠의 최고 지도자인 까르마빠가 착용한다.

샤마르는 붉은 색 모자로 모체와 기본적인 형태는 샤낙과 같으며, 편의상 출현 시기가 빠른 순서에 따라 양식 1 · 양식 2로 구분된다. 양식 1은 모체의 중앙에 금색의 납작한 마름모꼴 장식과 좌우 챙의 가장자리에 금색 장식이 있다. 양식 2는 양식 1보다 모체가 더 크고 모정이 곡선적이며, 보석 · 해 · 달 · 금강저 · 구름 장식이 있다. 까르마빠 아래 서열의 환생 라마인 샤마르빠, 타이 시뚜빠, 고씨르 갈참이 착용한다.

다샤의 모체는 오각형에서 모정의 뾰족한 각을 없애고 둥글린 형태가 되어 모정이 다른 관모에 비해 높으며, 별도의 천으로 된 큰 챙을 목둘레선까지 길게 내린 것이다. 감뻬빠 모자로 전해지며, 까규빠의 까르마빠와 환생 라마들이 쓸 수 있다.

다른 지역의 불교복식에서는 보이지 않는 의례용 관모가 티베트에서만 발달된 이유는 고산기후, 활발 사상, 각 종파의 조사와 불교 사상의 상징성, 불상

및 공양구에 옷을 입히는 티베트의 문화적인 특성 때문이다.

티베트 승려가 착용하는 의례용 관모의 형태는 주로 연꽃을 상징하고 있다. 색상은 장족의 민족성과 미의식, 불교 교리, 각 교파의 상징색이 반영된 홍 · 황 · 청 · 녹 · 백 · 흑색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직물은 방로와 꽃문양이 화려한 견직물이 주로 사용되었고, 장식은 금 · 금동 · 각종 보석으로 해 · 달 · 금강저 · 구름 등의 문양을 표현하였다.

## 참고문헌

- 1) 山口瑞鳳, 矢崎正見, *티베트 불교사*, 이호근, 안영길 역 (1995), 서울: 민족사, p. 135.
- 2) 김용문 (1997), 吐蕃의 服飾에 관한 研究 -7~11세기를 중심으로-, *원주대학 학술논총*, 26, pp. 497-517; 김용문 (2009), 티베트의 복식 문화, *차마고도의 삶과 예술*,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pp. 232-247; 이경희 (2003), 티베트 袍의 유형과 구조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선영 (2004), 중국 장족(藏族) 복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나영, 신혜성, 최지희 (2004), *아시아 전통복식*, 서울: 교문사, pp. 251-252; 박선영, 소황옥 (2005), 중국 장족(藏族)의 복식과 불교문화,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집*, 21, pp. 88-95; 소황옥, 김양희 (2008), *중국소수민족과 복식*, 서울: 경춘사, pp. 95-101; 華梅 (2004), *Chinese Clothing*, 김성심 역 (2008), *복식*, 서울: 대가, pp. 141-147.
- 3) 李民子 (1998), 티벳독립운동의 경제적 배경, *東亞研究*, 36, p. 219.
- 4) 揚清凡 (2003), *藏族服飾史*, 西寧: 青海人民出版社, p. 210.
- 5) "Wylie transliteration" 자료검색일 2011. 9. 5. [http://en.wikipedia.org/wiki/Wylie\\_transliteration](http://en.wikipedia.org/wiki/Wylie_transliteration)  
Turrell V Wylie이 1959년에 발표한 티베트어 표기 표준 시스템으로 미국에서는 티베트 연구와 관련한 표준 번역체도로 이용되고 있다.
- 6) 티벳장경연구소 (2010), *티벳어 한글 표기안*, 경주: 동국대학교 티벳장경연구소.
- 7) 山口瑞鳳 외, *op. cit.*, pp. 13-52, 67-80, 131.  
田中公明 (1996), *チベット密教*, 유기천 역 (2010), *티베트밀교 개론*, 서울: 불광, pp. 48-56.
- 8) 山口瑞鳳 외, *op. cit.*, pp. 48-66, 76-83.  
티베트 문화연구소 (1988), *티베트 인간과 문화*, 서울: 열화당, pp. 77-80.  
田中公明, *op. cit.*, pp. 71-82.  
紫圖編輯部 (2007), *唐卡中的西藏史*, 박철현 역 (2011), *1만년의 이야기 티베트*, 서울: 새물결, pp. 80-86, 122-147, 202-208.
- 9) 揚清凡, *op. cit.*, pp. 214-215.
- 10) Jonathan Landaw, Andy Weber (1993), *Images of*



- Enlightenment: Tibetan Art in Practice*, New York: Snow Lion Publications, p. 71.
- 11) 揚清凡, *op. cit.*, p. 213.  
Giuseppe Tucci (1970), *THE RELIGIONS OF TIBET*, Geoffrey Samuel (1988),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124.  
황엽 (2004), *티베트-그 비밀의 탄트라 속으로*, 안성: 도피안사, p. 198.  
"u rgyan pad zhwa" 자료검색일 2011. 9. 7, <http://www.ryan.moralhazards.com/english-tibetan-dictionary/zhwa/>
- 12) 紫圖編輯部, *op. cit.*, p. 215.  
통도사 정보박물관 (2001), *하늘과 맞닿은 불교왕국 티벳*, 양산: 통도사 정보박물관, p. 151.  
"lotus hat" 자료검색일 2011. 12. 20, [http://www.paluyul.org/eng\\_longlife.htm](http://www.paluyul.org/eng_longlife.htm).
- 13) 황엽, *op. cit.*, p. 199.
- 14) 티베트인들이 양모를 이용하여 손으로 직조한 모직물이다. "嚮嚮" 자료검색일 2011. 10. 12, [http://dict.zwbk.org/zh-tw/Word\\_Show/50849.aspx](http://dict.zwbk.org/zh-tw/Word_Show/50849.aspx)
- 15) 揚清凡, *op. cit.*, pp. 212-213.  
Giuseppe Tucci, *op. cit.*, pp. 124-125.  
Geshe Rabten (1980), *The Life of Tibetan Monk*, B. Alan Wallace (2000), Tassonneys: EDITION RABTEN, p. 29.
- 16) 紫圖編輯部, *op. cit.*, p. 121, 151.  
Geshe Rabten, *op. cit.*, p. 33.  
中國織繡服飾編輯委員會編 (2005), 第5卷 少數民族服飾卷(上), 天津: 天津人民美術出版社, p. 450.
- 17) 李玉琴 (2008), 藏傳佛教僧伽服飾釋義, *西藏研究*, 1, p. 91.
- 18) Giuseppe Tucci, *op. cit.*, p. 127.
- 19) 揚清凡, *op. cit.*, p. 213.
- 20) Geshe Rabten, *op. cit.*, p. 44.
- 21) *Ibid.*, p. 34  
楊清凡, *op. cit.*, p. 188.  
여동완 (2000), *티벳속으로*, 서울: 이레, p. 78.  
An Xu, Li Yong (2002), *TIBETAN COSTUME AND ORNAMENTS*, Beijing: China International Press, p. 142.
- 22) 揚清凡, *op. cit.*, p. 213.
- 23) *Ibid.*, pp. 213-214.
- 24) 통도사 정보박물관, *op. cit.*, p. 151.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주형 (2006), *인도의 불교미술 - 인도국립박물관 소장품전*, 서울: 사회평론, p. 171.  
Michele Martin (2003), *Music in the Sky: The Life, Art and Teachings of the 17th Gyalwa Karmapa Ogyen Trinley Dorje*, 신기식 역 (2007), *까르마빠 나를 생각하세요*, 서울: 지영사, p. 77.
- 25) Giuseppe Tucci, *op. cit.*, p. 128.
- 26) *Ibid.*, pp. 124-125  
"The Black Crown of the Karmapas" 자료검색일 2011. 9. 29, [http://www.kagyukdl.ru/karmapa\\_en](http://www.kagyukdl.ru/karmapa_en)  
"Black Crown" 자료검색일 2011. 9. 30, [http://en.wikipedia.org/wiki/Black\\_Crown](http://en.wikipedia.org/wiki/Black_Crown)
- 27) 紫圖編輯部, *op. cit.*, p. 163, 219.  
Michele Martin, *op. cit.*, p. 61.  
"Black Crown" 자료검색일 2011. 9. 26, <http://karmapa.brainbooking.com/?access=the-black-crown&language=eng>  
"Black Crown" 자료검색일 2011. 9. 28, <http://www.kagyuooffice.org/kagyulineage.blackcrown.html>
- 28) 紫圖編輯部, *op. cit.*, p. 162.
- 29) "Black Crown" 자료검색일 2011. 9. 28, <http://www.kagyuooffice.org/kagyulineage.blackcrown.html>
- 30) 紫圖編輯部, *op. cit.*, pp. 189-190.
- 31) *Ibid.*, p. 190.
- 32) "Black Crown" 자료검색일 2011. 9. 30, [http://en.wikipedia.org/wiki/Black\\_Crown](http://en.wikipedia.org/wiki/Black_Crown)
- 33) Michele Martin, *op. cit.*, p. 181, 185.  
"zhwa dmar" 자료검색일 2011. 10. 4, <http://www.himalayanart.org/image.cfm?icode=202>  
"Tai Situpa"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www.kagyuit/eng/masters\\_tai\\_situpa.html](http://www.kagyuit/eng/masters_tai_situpa.html)
- 34) Giuseppe Tucci, *op. cit.*, p. 125.  
Michele Martin, *op. cit.*, p. 139.  
"Tai Situpa"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www.kagyuit/eng/masters\\_tai\\_situpa.html](http://www.kagyuit/eng/masters_tai_situpa.html)  
"gampopa" 자료검색일 2011. 10. 8, <http://www.kagyuit.org/kagyulineage/lineage/kag06.php>
- 35) "gampopa" 자료검색일 2011. 10. 13, <http://www.treasuryoflives.org/biographies/view/Gampopa-Sonam-Rinchen/3168>  
Michele Martin, *Ibid.*, p. 139.
- 36) 임재해 (1992), 티베트 유목문화의 생태학적 해석, *比較民俗學*, 8, p. 116.  
文淳喆 (1997), 티벳 자연·인문 환경의 지리적 특성, *東亞研究*, 36, pp. 249-250.  
임재해 (1999), 티베트 세시풍속의 복잡성과 그 문화적 요소, *比較民俗學*, 17, pp. 366-367.  
王輔世 (1986), *中國民族服飾*, 香港: 和平圖書有限公司, p. 291.
- 37) 山口瑞鳳 외, *op. cit.*, pp. 130-132.  
이희재 (2005), 티베트 불교와 샤머니즘, *佛教學報*, 43, pp. 34-36.
- 38) 山口瑞鳳 외, *op. cit.*, pp. 69-75, 99-106.  
紫圖編輯部, *op. cit.*, pp. 163, 189-190, 219.
- 39) Michael Willis (1999), *Tibet: Life, Myth and Art*, 장석만 역 (2002), *티베트 - 삶 신화 그리고 예술*, 서울: 들녘, pp. 24-27.
- 40) Robert Beer (1999), *THE ENCYCLOPEDIA OF Tibetan Symbols and Motifs*, Boston: Shambhala Publications, pp. 37-38.
- 41) 繆良云 (2000), *中國衣經*, 上海: 上海文化出版社, p. 513.
- 42) 임재해, *op. cit.*, p. 121.  
심혁주 (2010), *티베트의 활불(活佛)제도 - 신(神)을 만드는 사람들*,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pp. 36-37.

- 43) 繆良云, *op. cit.*, p. 514.
- 44) Robert Beer, *op. cit.*, p. 41.
- 45) 王輔世 (1986), *中國民族服飾*. 上海戲劇學院中國民族服飾編委會, 香港: 和平圖書有限公司, p. 292.
- 46) Robert Beer, *op. cit.*, p. 24, 38, pp. 233-234, 239-240.
- 47) Geshe Rabten, *op. cit.*, p. 44.